

전남광주-대구, 공장 누비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만든다

산업부, 소부장특화단지 협력모델 선정…국비 200억 확보 센서·제어부터 모터·감속기·배터리까지 핵심부품 국산화 GGM 생산라인서 실증…방산·조선·반도체로 적용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시가 공장
에서 부품을 나르고 생산작업을 지원하는
제조현장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에 손
을 맞잡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구시와 공동

으로 추진한 ‘전남광주-대구 소부장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협력모델’이 산업
통상부의 ‘2026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
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제조현
장에서 부품과 자재를 운반하고 생산작업
을 지원하는 ‘제조현장 맞춤형 공정 모빌
리티 (PBM)’와 핵심부품을 개발·실증하
는 사업이다.

기존 공장용 무인운반장비 (AGV·
AMR)가 정해진 경로나 사전에 구축된
지도를 따라 물품을 운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PBM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
식하고 이동하면서 부품 운반은 물론 작
업과 생산공정 연계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두 지역 소부장 특화단지의 산업
기반을 결합하는 초광역 협력 방식으로 진
행된다.

전남광주는 카메라와 라이다 (LiDAR)
등 인지센서와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는다. 대구는 자동차 전동화 부품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모터·감속기·인버터
등 구동모듈과 배터리시스템 등 핵심부품
을 개발하고 PBM 플랫폼을 제작한다.

개발된 기술은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의 실제 자동차 생산라인에 적용
해 성능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검증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기업은 화인
특장이다. 전남광주와 대구지역 기업·연
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해 핵심부품과 자
율주행·인지·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 나선다.

핵심부품 국산화에도 속도를 낸다. 사업
단은 PBM 핵심부품 국산화를 90% 이상
을 목표로 구동부품과 배터리, 센서, 자율
주행 제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
다. 부품 개발부터 플랫폼 제작, 성능평
가, 생산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
해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조현장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로 넓
히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확보한 실증 데
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과 사업
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GGM 생산라인에서 검증한 기술은 자
동차뿐 아니라 방산·조선·반도체 등 다른
제조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입 대체, 지역기업
간 협력 강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서창농협, 신소득작목 ‘히카마’ 판촉행사

깍두기·무생채 등 음식 활용 다채…기후변화 대응 모색

서창농협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히카마를 선보이며 지역 소
비자들에게 알리기에 나섰다.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서창농협 하나로
마트 금호점에서 신소득작물인 히카마 판
매·시식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창농협 시범포에서 재배
한 히카마를 지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
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과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 이미경 농가
주부모임 회장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석
했다. 서창농협 조합원과 하나로마트 이
용객 등 200여명도 행사장을 찾아 히카마
를 맛봤다.

특히 히카마를 활용한 깍두기와 무생
채, 물김치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여 눈길

을 끌었다. 익숙한 우리 음식에 히카마를
접목해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식재료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히카마는 멕시코 등이 원산지인 덩이뿌
리 작물로, 겉모습은 감자와 비슷하지만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특징이다. 국내에
서는 아직 재배와 소비가 익숙하지 않은
작물인 만큼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능
성이 주목되고 있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이번 히
카마 시범재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재배 적합성과 생
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농가소득 증
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서창농협 하나로마트 금호점에서 신소득작물인 히카마 판매·시식회를 개최했다.

분산자원 가상발전소 통합 활용 힘 모은다

전력거래소-㈜볼트에이아이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거래소는 7일 본사에서 기후
테크 스타트업 ㈜볼트에이아이 (대표 최
현준)와 ‘기후테크 분야 민간협력 오픈이
노베이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창업진흥
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대기
업 등 수요기관이 제시한 전략과제에 기
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매칭, 기술검증
(PoC)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
력거래소는 올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다중 분산자원 통합 관리·운영 EMS 기
술 개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볼트에이아이가 최종 선정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태양광·풍력,
ESS, 전기자 (EV), 수요자원 (DR) 등 이
종 분산자원을 가상발전소 (VPP)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급전운영 방안과 시장 보
상 메커니즘, VPP 성능 평가기준을 공동
으로 도출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계통운영 분야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



볼트에이아이는 시장 설계 시뮬레이션 플
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채수 전력거래소 ESG경영처장은 “재
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분산자원을 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
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국내 여건에 맞는 VPP 제도 설계와 기후
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
다”고 말했다. 조합천 기자 pose007@

현대차·기아 ‘모베드’ 시연…특화산업 연계 논의

전남TP, 전남광주 AI·로봇 산업혁신 세미나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ICT로봇융
합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
성군·무안군·순천시, 농업기술원, 해
양수산과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대오트모버, ㈜시줄 등 연구기관·기
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
주 AI·로봇 산업혁신 세미나’를 개최했
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로봇 기술의 지역
산업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남광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확산모델과 산
업 연계형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기아로보틱스랩의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MobED)’를 직접 시연해 실내외 주행
과 장애물 대응 등 실제 운용 모습을 참
석자들에게 선보였다.

모베드 프로는 AI 자율주행 기술과
라이다 2개, 심도 카메라 3개를 탑재해
주변 장애물과 지형을 인식할 수 있다.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4륜 구조로 경사나 요철 구간에서도 주
행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탑재 장비

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외 배송과 물류를 비롯해 순찰·활
영·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농업과 물류, 제조 등 지역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는 자리가 됐다.

이어 김현영 (주)시줄 부사장이 ‘제조
현장 AI·데이터 기반 로봇SI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AI·데이터와 로봇 기술
을 결합한 제조 현장 혁신 사례를 공유
하고, 지역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로봇 확산모델과 스마트 로봇 협업과제
를 논의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 농촌 빈집 1만6000호 육박…재생 ‘제자리’

활용 가능한 주택 9603호…작년 활용 물량 64호 그쳐

빈집은행 등록 89건·거래 32건…“민간수요 연결 대응”

전남광주지역에 수리 등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농촌 빈집이 9603호에 달하지만
지난해 실제 활용 실적은 0.7%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빈집 정비가 철거에 치우치고 매매·임
대를 연결하는 사업도 거래 실적이 제한
적이어서, 활용 가능한 주택을 귀농·귀촌
인의 정착과 지역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리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
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농촌 빈집은 2023년 1만
5138호에서 2024년 1만6263호, 지난해
1만5972호로 집계됐다. 빈집 수는 철거가
필요한 주택과 활용 가능한 주택을 합산
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전남의 농촌
빈집은 1만5138호로, 철거 필요 8157호
와 활용 가능 6981호로 구성됐다. 광주
는 2023년 1만5972호로, 철거 필요 8157호
와 활용 가능 6981호로 구성됐다. 광주
는 2023년 1만5972호로, 철거 필요 8157호
와 활용 가능 6981호로 구성됐다.

2024년에는 전남의 빈집이 1만6225호
로 늘었다.

철거가 필요한 주택은 7277호 줄었
지만, 활용 가능한 주택이 8948호로 증가
했다. 광주는 철거 필요 17호와 활용 가능
21호 등 총 38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의 빈집은 철거 필요 6352
호와 활용 가능 9580호 등 총 1만5932호
였다. 광주는 철거 필요 17호, 활용 가능
23호 등 40호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전체 빈집은 2024
년보다 291호 줄었지만, 2023년과 비교
하면 834호 (5.5%) 많았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은 2023년 6981
호에서 지난해 9603호로 2622호 늘었다.
지난해 전체 빈집의 60.3%가 수리 등을
거쳐 다시 쓸 수 있는 주택이었다.

그러나 재생할 수 있는 주택 규모에 비
해 실제 활용 실적은 크게 부족했다.

전남의 빈집 정비 실적은 2023년 철거
1625호·활용 2호, 2024년 철거 1831호·
활용 11호, 지난해 철거 1751호·활용 64
호였다.

광주는 해당 기간 철거와 활용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에서 정비한

빈집 1815호 가운데 철거가 96.5%를 차
지했다.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물량은 나머지 3.5%에 머물렀다. 활용 실
적은 증가했지만, 활용 가능한 빈집 9603
호에 비하면 0.7%에 불과했다.

철거가 필요한 노후 빈집을 정비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한 주택을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다.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농촌 빈집은행’ 역시 등록 매물을
거레로 이어가는 데 한계를 보였다.

올해 8월 14일 기준 전남광주특별시의
빈집은행 등록 매물은 89건으로 전국
177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거래가 성사된 매물은 32건으로, 등록 대
비 거래 성사율은 36.0%였다. 거래 유형
별로는 매매 27건, 임대 5건이다.

지역별로 해남은 등록 44건 중 18건, 담
양은 39건 중 11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영
암은 3건 중 2건, 여수는 1건 중 1건이 거
래됐으며 광주에 등록된 2건은 거래 실적
이 없었다.

매물 대부분이 집중된 해남과 담양에서
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상당해
수리 지원과 수요자 연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 늘어난 농지임대·연금 수요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관련 문
의·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은행 디
지탈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와 농지연
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도 변경해 고객이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
도록 대응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 인증을 거쳐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사
는 고객이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제
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부터 이를 도입했으나 휴대전화 인증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층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
차를 간소화했다. 지사를 방문한 고객은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 후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된 정보
를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인적 사
향과 신청 정보를 자동 생성하고 사업 대
상 적격 여부도 자동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처리시간이 기존 9분 30
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어 고객 대
기시간은 짧아지고 담당자 업무 부담도
덜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순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지연금 실시간 대
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조합천 기자

콘진원, 웹툰 유럽 진출 지원

11일까지 독일 도서전 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만화·웹툰
기업의 해외 출판·유통 협력과 현지 독
자 확보를 연계해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
한다.

콘진원은 오는 11일까지 독일에서 열
리는 ‘2026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국내 만화·웹툰 1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콘진원은 만화·웹툰 해외진출지원
사업 (KOMICS) 일환으로, 해외 바이어
와의 기업 간 거래 (B2B) 상담과 일반 관
람객 대상 기업·소비자 간 거래 (B2C) 프
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 기업은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디씨씨엔티, 디앤
씨미디어, 리버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씨
엔씨레볼루션, 엠스토리하브, 와이캠, 투
유드림, 확산문화사 등 10개사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자사가 보유
한 지식재산 (IP)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
하고 출판·유통 등 사업 협력 방안을 논
의한다. 또 참가 기업과 주요 작품 정보를
담은 온라인 자료실을 구축해 해외 바이
어에게 홍보하고,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한 사전 소통도 지원했다. 조합천 기자